

메시지 4

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

성경: 골 1:12, 18, 2:6, 19, 3:15

I.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—골 2:6, 갈 3:14, 고전 15:45하.

- A.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누림을 위해 성도들에게 할당된 뭉이시다—골 1:12.
 - 1. 그분 안으로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—요 3:15-16, 1:12-13.
 - 2.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—고후 3:17, 딤후 4:22.
- B. 우리는 그리스도,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으로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—골 2:6.
 - 1. 행하는 것은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다.
 - 2.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의 풍성한 모든 소출을 누린 것과 마찬가지로,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움직임으로 그분의 풍성을 누려야 한다—엡 3:8, 신 8:6-10.
- C. 오늘날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이며, 이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—갈 3:14, 딤후 4:22.
 - 1.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생명 주시는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다—요3:6, 고전 15:45하, 6:17.
 - 2.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행하고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존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.
 - 3.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신약에서 중심적이고도 중요한 중점이다—롬 8:4, 갈 5:16, 25.

II.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—골 1:18, 2:19, 3:15.

- A. 우리는 반드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—골 1:18, 2:19.
 - 1. 모든 지체들의 위치는 머리를 붙들고 범사에 그분을 유일한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다—마 28:18, 골 2:19.
 - 2. 몸이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몸이 머리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—골 2:19.
 - 3. 몸의 지체들은 오직 머리를 붙잡음으로 함께 맞추어진다—엡 4:15-16.
 - 4. 몸의 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는 반드시 머리를 생명으로, 첫째 대상으로, 우리의 온 존재의 중심으로 취해야 한다—골1:18, 3:4상, 10-11.
 - 5. 우리는 모든 지체들과 협력하여 머리를 표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—롬 12:5.
- B.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의 생명으로 체험해야 한다—골 3:4상, 10-11.
 - 1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우리가 되시는 정도로 우리에게 주관적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—요 1:4, 14:6상, 10:10하, 고전 15:45하, 롬 8:10, 6, 11.
 - 2.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, 부활한 생명,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—갈 2:20, 요 11:25, 골 3:4상, 마 6:1-6, 16-18.

3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살아야 한다는 강한 표시이다—골 3:4상, 빌 1:20-21상.
- C. 우리가 머리에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몸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란다—골 2:19.
1. 몸의 성장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고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—골 2:19.
 - a.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실수록,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신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길이다—고전 3:6-7.
 - b.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수 있다.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실 수 있으며, 그분이 없이 우리는 자랄 수 없다—고전 3:6-7.
 2. 몸이 머리를 붙잡음으로 공급받을 때, 몸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란다—골 2:19, 엡4:15-16.
- D. 우리는 몸의 화평을 주의해야 한다—골 3:15.
1. 그리스도 자신인 화평,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화평,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전하신 화평은 몸의 화평이며 몸 안에 있는 화평이다—엡 2:14-15, 17, 4:3-4, 골 1:20.
 2. 우리는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부름을 받았다.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리는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지킨다—골 3:15, 엡 4:3.
 3. 몸에서 독립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참된 화평이 없다. 몸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을 가져온다—갈 6:16.
 4. 몸 안에 살고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 몸의 화평 안에 사는 것이다—엡 6:23, 롬 12:18, 히 12:14.